

제142호

발행일 : 서기 2019년 1월 29일
창간일 : 서기 1983년 8월 15일
구독신청 : (02) 2244-3717
(02) 2244-3710
FAX : (02) 2243-1073
E-mail : andongkimgu@naver.com

安東金氏 大宗會報

발행인 : 김 석 한
편집인 : 김 상 근
인쇄인 : 김 원 희
발행처 : 안동김씨대종회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 131
(우) 02435
홈페이지 : andongkimc.kr

신년사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해년 희망찬 새해를 맞아 70만 종친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원로 고문님, 각파 종회장님, 지역 종친회장님, 대종회이사님들을 비롯하여 대종회 발전에 헌신 봉사하여 주신 종친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일심동체 승조의 마음으로 안동회관 매입에 헌성금을 답지하여 대종회 운영에 적극참여 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정성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일 우리 대종회는 안동김문 역사의 고향인 안동에 회관을 장만하여 350여 종친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렬공 중시조님께 고유(告由)하고 개관식을 성대하게 갖었습니다.

이로서 우리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져 대종회는 임대수익으로 재정이 나아지고 안동종친회는 사무실을 갖게 되어 종회 발전의 새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0월 13일에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서울의 보인고등학교에서 개최하여 전국에서 참여 하신 700여 종친들의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혈족간에 상부상조, 친목을 도모하고 노소간에 소통하며 원근 각지에서 모여 한마음이 되어 하루를 즐겁으로 한없는 희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이은 행사로 총렬공고비위 세일사에 350여 종친들이 참사(參祀)하여 승조의 예를 다하니 크나큰 공지와 자부심을 갖게되었습니다. 우리 대종회가 날로 활기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금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여 비약의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황금 돼지의 해인 금년에는 안동 회곡의 선산에 안동김씨 역사공원 조성 및 상계선조님 추모단 건립을 추진 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대종회 재산 관리의 일환으로 대종회관 보수공사 및 안동의 음수재, 영정각, 관리사, 신도비각 등 노후건물 보수공사를 하여 선대님들이 물려주신 건물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년에 판서공종회와 문영공종회 그리고 몇 몇 파종회는 신임 종회장님이 선임되어 새롭게 종무에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하드리며 고생 많이 하시고 퇴임하시는 전임 회장님들께도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1/4분기 대종회 행사로는 회장단회의와 고문, 이사, 연석회의인 임원회의가 있으며 3월 21일 대종회 정기총회가 백범기념관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참석으로 성황을 이루어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행복의 제일은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만사가 무용지물 일 수 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종친 여러분 건강과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기해년 새해

安東金氏大宗會 會長 金錫漢 拜上

공 고

안동김씨대종회 제52회 정기총회 개최

2019년도 안동김씨대종회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니 종친 여러분께서는 꼭 참석하시어 대종회 발전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일시: 2019. 3.21(목) 오전11:00
- * 장소: 백범 김구 기념관 (02)799-3421
- * 참석 회비: 30,000원

상정안건

1. 2018년도 수입·지출 결산보고
2. 2019년도 예산안 심의
3. 2019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4. 기타 상정안건 심의

백범김구기념관 찾아오는 길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임정로 26 (☎02-799-3400)

● 지하철

1. 효창공원앞역(6호선) 1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2. 공덕역(5, 6호선, 경의선, 공항철도) 6번 출구, 공덕지구 대 앞에서 마포 17번 버스 이용
3. 숙대입구역(4호선) 2번 출구, 남영우체국에서 400번 버스 이용

● 버 스

1. 마포 17번(공덕역)
2. 400번(종로, 서울역, 숙대입구역), 2016번(한남동, 이촌동, 효창공원앞역), 용산 04(서부역)
3. 110A, B(신촌, 이태원, 삼각지), 740번(신촌, 강남역)





정동진 일출 / 사진 필봉 김성묵

謹賀新年

지난해 성원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己亥年 새해는 더욱더 발전하시고 번영하시기를 바라며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한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安東金氏大宗會 任員 一同

顧問

(密)榮應 (郡)在化 (郡)德賢(在) (郡)俊默 (典)在旭 (典)大教 (副)圭章(在) (文)在承 (文)在湔 (文)光道(泰) (文)秀吉(在) (安)在德 (都)昌會 (都會)秀(會) (都)熙允(泰) (都)榮福(泰) (都)元重(植) (大)京宗(會) (大)泰植 (提)永默 (提)相祚(在) (提)相天(在) (提)俊會 (提)南應(會) (提)泰完 (提)天應(會) (按)觀默 (按)在澤 (按)聖會 (按)泰龍 (按)泰文 (按)春植 (按)喆會 (按)雄會 (翼)在寬 (翼)在瑢 (翼)在勳 (翼)基成 (在) (翼)善會 (翼)容大 (翼)花子(容) (翼)泰吉 (翼)鳳會 (書)在峻 (書)詳浩(植) (正)洙鎮(泰) (正)元植

任員

名譽會長 (都)鳳會
會 長 (翼)錫漢(在)
副 會 長 派宗會長
(按)榮萬 (密)在亨 (開)履暎(植) (郡)鴻洙(泰) (典)興植 (副)元鎬(會) (文)榮煥 (安)洪基(泰) (都)在洙 (大)燦會 (提)泰憲 (判)奉善(泰) (按)璇會 (翼)在永 (書)喆浩(植) (正)泰石
地域宗親會長
(翼)在教 (都)泰祚(在) (翼)正默 (郡)成默 (翼)在男 (翼)泰成 (都)珽(在) (提)泰煜 (按)亨南(容)

大宗會長 推薦

推薦 (提)泰瑄 (典)春教 (翼)康植 (典)官教 (翼)聖會

監 事 理

(文)潤萬(會) (按)泰善
事 (密)在革 (開)雄善(容) (郡)俊會 (郡)在二 (郡)重會 (郡)張會 (典)泰振 (典)龍雨 (副)榮植(榮) (副)圭世(在) (副)昌植(在) (副)泰亨 (副)成煥(默) (文)榮潤 (文)亨默 (文)臣默 (文)容九 (安)鳳基(泰) (都)時大(在) (都)道中(植) (大)泰權 (提)奎元(泰) (提)相基(在) (提)貞應(會) (提)奎喆(泰) (提)泰皓 (提)瀚植 (提)雲澈(容) (提)容恒 (提)泰施 (判)奉國(泰) (按)在玠 (按)在鴻 (按)泰駿 (按)雲會 (按)在琦 (按)仁植 (按)鳳振(泰) (按)泰永 (按)容元 (按)容周 (翼)榮棠 (翼)太圭(默) (翼)允默 (翼)在湔 (翼)在源 (翼)在澤 (翼)晟會 (翼)榮秀(泰) (翼)根植 (翼)英桓(植) (翼)永植 (翼)洙寅(泰) (翼)泰喆 (翼)容世 (翼)容默 (翼)榮和 (翼)相默 (翼)泰信 (書)噉永(會)(書)圭銀(泰) (正)泰仁 (郡)在九 (典)仁教 (翼)泰剛 (都)熙仲(泰) (翼)晶會 (文)洙吉(泰) (文)永會 (典)憲德(容) (典)龍教 (典)在清 (典)泰義 (按)榮一 (按)辰姬(泰) (翼)鐘會 (翼)善會 (提)章應(會) (都)大會 (都)一秀(會) (都)運中(植) (提)奉會 (提)龍植 (提)雲仙(容) (按)泰聖 (按)炫秀
事務總長 (提)相根(在) 事務副總長 (郡)泰榮 常任有司 (翼)東洙

◆ 2019년 1/4분기 대종회 행사일정 ◆

● 회장단회의	일 시 : 2019년 2월 26일(화요일) 오전11:00 장 소 : 대종회관 회의실 참석대상 : 대종회 회장단 안 건 : 안동김씨대종회 회칙 규정에 의한 토의안건
● 이사회의	일 시 : 2019년 3월 6일 (수요일) 오전 11:00 장 소 : 한강호텔(서울 광진구 아차산로78길 147 T.02-453-5131) 참석대상 : 대종회 이사. 고문포함. 회장단 전원 안 건 : 연간 세입세출. 2019년도 예산안 검토 기타 회칙에 규정한 안건토의
● 정기총회	일 시 : 2019년 3월 21일 (목요일) 오전11:00 장 소 :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 참석대상 : 안동김씨 대종회 회원 전원 안 건 : 2018년도 결산안 2019년도 예산안 기타 회칙에 규정된 안건 참석회비 : 3만원



安金世雲千季光	안김세운천년광
入相出將忠烈花	입상출장충렬화
先祖寶血萬孫氣	선조보혈만손기
子孫松鶴萬世榮	자손송학만세영

안동김씨 세운을 타고 천년 세월이 흘렀네
들면 정승이요 나면 장군이라 충렬꽃이 피었네
안김자손 송학과 같이 만세의 영화를 누리리라



雲菴 金在信 作家 略歷

- 金榮奎先生 漢學傳受
- 大韓國綜合美術大展 特選2回
- 韓國書畫藝術大展 特選4回 最優秀賞 招待作家
- 書藝展 世宗文化會館 全館展示 KBS1TV放映
- 成均館 儒學大學院 高級科程 修了
- 大佛字300佛 完成
- 直指心體要節 204點 篆書體 完成
- 八道名勝詩600點 名詩全書1100點 屏風27點 製作
- 韓國救國功臣碑文 語錄碑文 愛國詩 名鑑94本 影幀爲 侍奉

- 漢學書籍18種 書冊全文完畢[6年3個月間]
- 秦始皇前後時代篆書38體 屏風製作
- 甲骨文 又 最古代文字 般若心經屏風製作 外 重要作品 多數
- 甲骨文字581字金粉製作
- 李白 杜甫 生涯 漢詩 全文 篆書體 完成
- 雲菴書苑 運營
- 忠烈公23世孫(郡事公派)
- 忠北 陰城郡 陰城邑 水晶路22番地 011-366-9837

2018忠烈公考妣位 歲一祀 獻官, 諸 執事 分定 및 祭禮試演

2018.11월9일 오후2시 戊戌年 忠烈公考妣位 歲一祀 獻官, 諸 執事 分定 및 祭禮 試演행사가 대종회장님과 제집사 위촉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종회 사무실 에서 열렸다. 행사 진행은 헌관 및 제집사 인사소개 후 큰절하는 법을 익히고 세일 사 봉향의 창홀에 따른 세밀한 부분의 행동 하나 하나를 시연하고 토론을 하며 진행하였다. 2차에는 실제 봉향과 동일하게 연습하면서도 법도있게 시연함으로서 11월16일 시제봉향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정성을 다해 시연함으로 참석자 모두 가 만족하는 행사가되었다. 山神祭 試演도 정확하게 하고 제물은 실물과 동일한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분향에는 묵향을 사용하였다. 이날 모형제물과 제기 세수기 등은 在九(郡)님이 제공 해 주셨으며 행사 종료 후 망침을 대종회장님께서 수여해 주셨다. 참석자 합동 기념촬영 후 행사를 종료하였다.



年度別 分定 現況

• 忠烈公諱方慶 歲一祀

年 度	初獻官	亞獻官	終獻官
2010 庚寅	昌會(창회)(都)	俊會(준회)(提)	光道(광도)(文)
2011 辛卯	鳳會(봉회)(都)	善會(선회)(翼)	在昊(재호)(文)
2012 壬辰	在光(재광)(翼)	泰文(태문)(按)	在正(재정)(都)
2013 癸巳	重默(중묵)(君)	璇會(선회)(按)	錫漢(석한)(翼)
2014 甲午	錫漢(석한)(翼)	泰瑄(태선)(提)	聖會(성회)(按)
2015 乙未	鳳會(봉회)(都)	相天(상천)(提)	大敦(대교)(典)
2016 丙申	榮萬(영만)(按)	東洙(동수)(翼)	鍾成(중성)(翼)
2017 丁酉	錫漢(석한)(翼)	榮福(영복)(都)	奎喆(규철)(提)
2018 戊戌	在永(재영)(翼)	容斗(용두)(提)	俊會(준회)(郡)

• 冷平國大夫人竹州朴氏 歲一祀

年 度	初獻官	亞獻官	終獻官
2010 庚寅	相天(상천)(提)	東洙(동수)(翼)	璇會(선회)(按)
2011 辛卯	重默(중묵)(君)	泰文(태문)(按)	元植(원식)(正)
2012 壬辰	弘默(홍묵)(君)	章秀(장수)(都)	在英(재영)(密)
2013 癸巳	觀默(관묵)(按)	在英(재영)(密)	漢鳳(한봉)(都)
2014 甲午	榮煥(영환)(文)	在永(재영)(翼)	興植(흥식)(典)
2015 乙未	在正(재정)(都)	春植(춘식)(按)	泰永(태영)(按)
2016 丙申	鳳會(봉회)(都)	泰永(태영)(按)	元會(원회)(郡)

年 度	初獻官	亞獻官	終獻官
2017 丁酉	榮和(영화)(翼)	在二(재이)(郡)	在源(재원)(翼)
2018 戊戌	德賢(덕현)(郡)	康植(강식)(翼)	泰聖(태성)(按)

• 2018年(戊戌) 安東享祀 諸執事 分定表

陳設 진설	光得 광득(翼)	光得 광득(翼)	寬植
大祝 대축	雲起 윤기(提)	雲起 윤기(提)	會行
執禮 집례	潤萬 윤만(郡)	潤萬 윤만(郡)	容行
贊引 찬인	容恒 옹항(提)	容恒 옹항(提)	
奉香 봉향	炫秀 현수(按)	炫秀 현수(按)	泰東
奉爐 봉로	永會 영회(翼)	永會 영회(翼)	
司樽 사준	在九 재구(郡)	在九 재구(郡)	
封爵 봉작	준식 준식(按)	준식 준식(按)	
奠爵 전작	雲澈 윤철(翼)	雲澈 윤철(翼)	容行
時到 시도	聖會 성회(按)	聖會 성회(按)	
直日 직일	鳳會 봉회(都)	鳳會 봉회(都)	

• 山神祭

獻官헌관	興植 흥식(典)	興植 흥식(典)	
大祝대축	雲起 윤기(提)	雲起 윤기(提)	會行
執事집사	雲澈 윤철(翼)	雲澈 윤철(翼)	容行

戊戌年 文英公宗會 享祀 奉享



2018년 11월 14일(음 10월 7일) 오전11시 안양시 관양동 묘정에서 文英公宗會 享祀가 예년과 달리 포근하고 따스한 날씨속에서 奉享되었다.

榮萬 文英公宗會長을 비롯하여 錫漢 大宗會長 등 종친 170여분의 참석으로 경건한 가운데 향사를 봉향하여 승조 함양의 자리를 빛내었으며 榮萬 會長은 文英公 할아버님 享祀에 參祭하여 주신 많은 종친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나누고 재실인 敬慕齋 내에서 정성으로 준비한 점심 식사를 나누었다.

주요 分定은 다음과 같다.

初獻官	觀默	按廉使	일산	亞獻官	聖會	翼元公	부여
終獻官	喆浩	書雲觀	서울	執禮	在永	翼元公	수원
大祝	聖會	按廉使	서울	贊人	容恒	提學公	청주
直日	永默	提學公	청주				

이날 종회에서는 준비한 작은 선물을 참석한 종친분들께 드리며 아쉬운 작별을 하였다.



2018 戊戌年 忠烈公考妣位 歲一祀 奉行



2018(戊戌)11.16.(陰10.9) 忠烈公考妣位 歲一祀가 능동 묘소와 檜谷 冷平國 大夫人 竹州 朴氏 할머니 壇所에서 奉行 되었다. 錫漢 대종회장님을 비롯하여 대종회 임원들과 전국에서 오신 350여 종친

어른들께서 참석 하여 성황리에 제례의식에 맞추어 禮를 다하였다. 날씨가 청명하고 온화하여 늦가을의 정취와 함께 참례자들의 숭모의 마음을 더해 묘역은 歲一祀 時空의 場으로 선조님과 만남의 시간이 흘렀다.

대종회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종친께서 하루전날 오셔서 음수재에서 1박하며 시제 준비를하고 안동 도유사님을 비롯하여 유사 여러분이 제물을 꺾이고 안동종친회 부녀회원들께서 행사준비를 도왔다. 음수재 앞 마당에는 향축대 접수와 종친간 만남의 인사가 화기애애 한 가운데 꽃을 피우고 오전 11시 時祭를 알리는 현수막 아래를 지나 현관 및 제집사, 도포 입은 참례자, 일반 참례자, 순으로 묘전으로 입장하여 집례의 홀에 따라 제사가 진행되었다.

묘 전 상석위에 차일을 치고 제수를 진설하고 봉향, 강신, 초헌, 독축, 순으로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350여명 參祀者가 墓前에 도열하여 큰절을 올릴수가 없어 일반 참사자는 공수 배례로 약식 절을 올렸다. 禮畢 後 음복을 하며 선조님의 위업을 회고 하고 산세의 화려 함을 이야기 하며 저마다 건강과 가족의 안녕을 내려주시기를 염원하였다.



음수재 앞 마당 으로 내려와 점심식사를 마치고 회곡으로 이동 하여 오후 2시부터 冷平國大夫人 竹州朴氏 할머니 壇所에서 제례봉행을 하였다. 歸家 前 대종회는 봉송 선물로 안동사와 한 박스를 드리고 대종회장님께서 참례자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고급 화장품을 선물 하셨습니다.

安東金氏 全 宗親이 한마음으로 2018戊戌. 선조님고비위 세일사가 대성황리에 盛了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노구로 원거리에서 참석하신 연로하신 종친님들 먼거리를 오시느라 새벽 부터 고생하신 참례자 여러분 시제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유사 및 관리인 안동종친회 및 부녀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 安東金氏大宗會 事務總長 相根 —

2018년 정간공 휘영후, 영삼사사공 휘천, 안렴사공 휘사렴 세일사 봉향



2018, 무술년 11월12일 오전 11시 오창읍 모정리 167번지 묘소에서 정간공(휘영후) 영삼사사공(휘천) 안렴사공(휘사렴)의 세일사를 봉행하였다. 늦가을 쾌청한 날씨에 석한 대종회장님, 재영 익원

공파종회장님, 영만 문영공종회장님, 천응 제학공파종회장님, 철호 서운관정공파종회장님, 태룡 파종회고문님, 선회파종회장님 등 120여명의 종친이 참석하여 성대하게 거행하였다. 시향이 끝나고 재실에서 음복주를 곁들여 소머리 국밥으로 점심식사를 하였다.

참석하신 종친 여러분들께서 식사 중 밥이 부족하여 식사를 하지 못하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점심 식사후 오창읍 복현리 체경묘원에서 소운공(휘약), 지주사공(휘우주)



시향을 올리고 오창 양지리로 이동하여 안렴사공 5대손 현령공(지)의 시제를 지냈다.

모정리, 복현리, 양지리에 참석하신 종친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 파종회 사무국장 김현수 —

文肅公 諱永暉, 上洛伯公 諱縝, 提學公 諱益達, 歲一祀 奉享

2018년 11월13일(목) 오전11시 文肅公 諱永暉, 上洛伯公 諱縝, 提學公 諱益達, 司諫公(諱顧) 監察公(諱孟廉) 主簿公(諱哲鈞) 承旨公(諱壽亨) 考妣位 歲一祀가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 79-1 永慕齋에서 奉行 되었다. 파종회 임원 및 직 방계 후손 참사자 60여 명이 참석하여 집례 태헌님의 홀 창으로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시제례를 봉행하였다. 선조님을 추모하며 전통 제례 의식으로 진행하여 시제를 마치고 이어서 백전 문중 선조님들의 시향제를 봉행하였다.

시제 봉행이 끝난 후 제학공파 201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총무부장 태호님의 업무보고 규원감사의 감사보고 후 2017결산안과 2018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승인 하고 파종회장에 태헌, 감사에 평응, 윤철을 선출하고 신임회장은 총무부장에 규원을 임명하여 집행부를 구성하였다. 신임회장 인사말씀으로 파종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로 종친 및 임원 그리고 모든 종친들의 협조를 부탁하였다. 회의 종료 후 식사를 하며 종친간 돈독의 시간을 갖었다.



文敬公 諱壽童 秋季 享祀 奉享



충렬공 증시조님 추계향사(음력 10월 9일)를 모시고 다음날 동추공 할아버님 추계향사(“문”“효”“목”“풍”)음력 10월 10일 모신 후 돌아오는 첫주 일요일로 정해져 있기에 지난 양력 11월 18일

이날도 의정부 영의정(議政府 領議政)을 지내셨던 문경공 만보당 휘: 수동 文敬公 晩保堂 諱: 壽童 할아버님의 추계 향사를 대구광역시 동구 송정동 장등산 (사리사)동편 묘역에서 엄숙히 거행되었습니다. 초

헌관에는 - 김종묵: 문경공중회 회장 아헌관에는 - 김태신: 영안군 중헌관에는 - 김은호: 도평의 공파 대구종친회 회장 집례에는 - 김정묵: 대구종친회장 대축에는 - 김영화: 대구종친회 고문을 분정 하였습니다. 이날 향사에는 정성껏 손수 준비한 재물을 차리고 순서에 따라 진행 되었으며 제주는 당진 용세(翼) 종친님께서 직접 제조 하신 백련주를 올리고 제례를 마친후 음복을 하며 선조님에 대한 음모와 일가간의 화목과 단결을 다짐하였습니다. 이번행사에 성원을 보내주신 대종회 석한 회장님 익원공파중회 재영 회장님 부여에 계시는 성회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역대 최고의 많은 종친님을 모셨습니다. 또한 많은 향족 대금을 헌봉하여 주시고 참례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서운관정공파 시향제 소개

戊戌年 時享祭 概要

(1) 祭禮

서운관정공파(이후 “우리 파”라 칭함)는 매년 네 지역에서 시향제를 봉행하고 있다. 제1지역은 (음)10월1일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소재 광곡재실(廣谷齋室, 書雲齋)에서, 제2지역은 (음)10월 3일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지월리>소재 문화재 묘역의 광주재실 (廣州齋室, 慕先齋)에서, 제3지역은 (음)10월 11일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궁리>소재 여주재실(驪州齋室, 駱峯齋)에서, 제4지역은 (음)10월 15일 <충남 청양시 목면 대평리>소재 목사공(諱 叔演) 묘역에서 묘제로 각각 봉행한다. 금년(乙未年) 제1지역의 시향제는 지난 11월12일(음 10.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소재 서운재(書雲齋, 廣谷齋室)에서 중중회 철호(喆浩) 회장을 비롯한 서운관정공파 후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다.

서운재에 배향된 선조는 파시조 서운관정공(諱 綏)과 서운관정공의 아버지 장령공(諱 莚)를 비롯해 22분으로 5회에 나누어 제(祭)를 올렸다. 제1祭는(掌令公 莚, 書雲觀正公 綏, 參判公 陞, 監察公 自行)을, 제2祭는(*徐甄*, 季演, 希壽, 魯)를, 제3祭는(星漢, 鳴漢, 秀人, 秀民)를, 제4祭는(秀臣, 秀文, 裕憲, 祖憲)를, 제5제는(伯演, 仲演, 信立, 衡重, 鏡)의 순으로 봉행했다. 제1제의 초헌관은 철호 회장이, 아헌관은 봉주 종친이, 중헌관은 덕영 종친이 봉행했고, 제2제의 초헌관은 종선 종친이, 아헌관은 상호 종친이, 중헌관은 정수 종친이 담당했고 나머지 제는 직계 후손들이 봉행했으며 축관(祝官)은 돈영(墩永) 이사가, 집례(執禮)는 재준 부회장이 담당했다. 이날 향사에는 고려 충신 장령공 서견(徐甄)도 제향을 올렸다. 서견은 고려 후기의 문신 으로 초명은 반(頒), 본관은 이천(利川), 호는 여와(麗窩) 또는 죽송오(竹松塢)로 서운관정공 의 아들 김질(參判公 陞)의 장인(丈人)이시다.

(2) 陳設과 笏記

우리 파의 진설방식은 홍동백서(紅東白西)를 따르고 있으며 흘기(笏記)는 한글 흘기를 사용 하고 있다. 조선조 시대 우리파의 선조는 남인(南人)이었다. 15세기 중엽 역성파(易姓派)가 실권하고 사림파(士林派)가 정권을 잡은 후 사림파가 동인(東人)과 서인(西人)으로 나뉘는 때 동인 이었고, 동인이 건저문제(建儲問題)로 남인과 북인으로 갈릴 때도 남인 이었다. 이후 정권의 부침에 따라 여러 파로 분파될 때에도 역시 우리의 선조는 남인 이었다. 특히 숙종 때 갑술환국(甲戌換局)으로 서인에 의해 안동김씨가 멸망할 때에도 역시 남인의 체통을 유 지함으로써 전통적인 남인의 진설방식(陳設方式)인 홍동백서를 따르고 있다.

<표-1> 世居地別 墳墓 및 齋室 配享 先祖

系派	地域	齋室 配享 先祖 名	數	齋室名 時祭日
荷 糖 公	서울 + 경기 의왕	서울 伯演(4세), 仲演(4세), 晦(6세)	3	廣谷齋室 【書雲齋】 음10.1
		학익동 星漢(15세), 鳴漢(15세), 秀文(16세), 裕憲(17세)	4	
		포일동 慕(0세), 綏(1세), 陞(2세), 自行(3세), *徐甄*, 季演(4세), 希壽(5세), 魯(6세)	8	
		내손동 秀人(16세), 秀民(16세), 秀臣(16세), 祖憲(17세)	4	
	경기 광주	문화재 묘역 弘慶(7세), 瞻(8세), 誠立(9세), 正立(9세), 蘭雪軒(성립배위), <자녀>	5	廣州齋室 【慕先齋】 음10.3
		지월리 拭(10세), 大敏(11세), 德(12세), 愼(12세), 玄璣(13세), 玄璣(13세), 愼(14세), 昭漢(15세), 秀晚(16세)	9	
		무갑리 玄珪(13세), 愼(14세), 愼(14세), 應漢(15세), 秀蓮(16세)	5	
		신월리 德(12세)	1	
	경기 여주	궁리 大成(11세), 大智(11세), 侃(12세), 玄述(13세), 愼(14세)	5	驪州齋室 【駱峯齋】 음 10.11 음 10.15
		도곡리 振(10세), 大敏(11세), 玄升(13세), 玄珪(13세), 愼(14세), 愼(14세), 豐漢(15세)	7	
		계신리 奎(12세), 敏(12세)	2	
	충남 청양	叔演(4세)<묘제봉행>	1	
계			54	
夢 村 公	서울	서울 信立(9세), 衡重(11세), 鏡(12세)	3	
	경기	안성 祿(10세)	1	
	충북	음성 辟(9세), 敬立(10세), 祢(10세), 胤重(11세)	4	
		미상 袍(10세), 衡重(11세)	2	
	계		10	
桂 華 公	전남	반월리 應日(9세), 洙(12세), 致漢(15세)	3	
	순창	침판동 迪(10세)	1	
	죽곡리	兌元(13세), 萬直(14세), 秀九(16세)	3	
	곡성	복소 弘文(7세), 榮秀(8세), 橫玄(11세)	3	
	계		10	
합계			74	



▲ 書雲觀正公派 廣谷 時享祭 2018년 11월20일(10.1.(陰))

副使公 諱天順考妣 以下13先祖 享祀 奉行



2018.11.23(금)(음력 10.16) 홍성 부사공이하 선조님 시제를 봉향하였습니다. 부사공 설단 아래 제실에서 종친 20여분이 참례하여 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부사공 선조님 이하 5대조상님을 한 반상으로 진설하였으며

종손 희용(충렬공 23대손, 부사 공 19대손)님이 강신 예를 하고 초헌관으로 초헌작을 하였으며 아헌은 부평에서 오신 재철, 종헌관은 철원에서 오신 재풍님께서 헌작을 하신 후 이하 6대 선조님께서는 새로운 제물로 진설을 하고 종손 희용님, 대구에서 오신 춘식(보명 영식), 종헌 철원종회 회장 태형 종친께서 헌작을 하시고 음복을 하면서 차후에는 먼곳에서 참례하신 종친께서도 종헌관과 함께 배례를 하도록 하자는 제안에

동의 하고 시제를 마쳤습니다. 시제를 마치고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여 점심을 하고 귀가하였습니다.

▶참례자는

희용, 홍성 인회, 돈회, 태길, 태현, 대식, 철원 재풍, 규면, 규훈, 태형, 부평 재철, 울산 종대(보명 재한), 광명 원호와 종부 3분

▶향족대

• 대종회 200,000원
• 부사공파종회 300,000
• 철원종회100,000 • 원호회장 100,000 • 종대50,000
• 재철 50,000 • 규면 50,000 • 재풍 30,000원
총 880,000원을 시제를 준비하신 대식씨에게 전함



안동김씨 전서공파 추계제향 봉향 및 정기총회 개최



2018.11.11.(오전11시) 세종시 전동면 학당이길 39 선영에서 후손들이 참례하여 추계 제향을 봉향하였다. 먼저 산신제를 올리고 장령공 휘구 선조님, 전서공 휘성목 선조님, 검교공 휘휴 선조님의 시제를 올렸다. 선조님의 위업을 기리고 역사적 발자취를 소개한 후 집례의 창홀에 따라 제례를 진행하여 11시 30분 종료하였다. 종료 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회장(홍식)을 유

임하고 이사 인준, 총무 성회를 유임시켰다.

[회장 인사말] 대종회 체육대회 보고, 안동 시제 참석 등 전서공파에 수고하신 종친께 공로, 감사장과 부상을 드렸다. 상정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회의 종료 후 준비한 음식과 약주로 답소하며 종친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파종별로 인사 후 향족대를 내주신 종친을 호명 박수로 감사를 표하였다. 다가오는 2019년을 기약하며 포용으로 아쉬운 작별을 하였다.

▶분정

• 산신제 현관 전서공파 회장 홍식 대축 총무 성회, 좌우 집사 참판공파 문화, 윤식
• 장령공(휘,구) 초헌 참판공파 국회, 아헌 참판공파 정식, 종헌 정랑공파 재풍
• 전서공(휘,성목) 초헌 참판공파 국회, 아헌 참판공파 홍식, 종헌 정랑공파 선묵
• 검교공(휘,휴) 초헌 참판공파 국회, 아헌 참판공파 용우, 종헌 정랑공파 태진

*집례 - 성회 / 대축 - 홍식 / 좌,우 집사 - 윤식, 종식 / 사준 - 문화
전사관 - 재욱

- 전서공파 회장 김홍식 -

안동김씨 논산종친회 제31차 정기총회 성료



2019년 1월 5일(화) 안동김씨 논산종친회 제31차 정기총회가 충남 논산시 취암동 고구려식당에서 김재운 회장님을 비롯하여 종친 20여명이 참석하여 성원을 이룬 가운데 개최

되었다.

김재운 회장님의 인사말씀과 김재택 총무의 결산보고를 마치고 임원 선출을 하였다. 회장 김재희, 총무 김재승을 선출하고 회의를 마쳤다. 김재승회장님과 김재승총무님 인사말씀을 하고 참석회원 모두가 점심식사를 하며 답소를 나누고 종친간 친목을 도모하는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 기사제공 총무 김재승 -

訃音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안동김씨 대종회 고문 琮會(문은공)님께서 1월21일 별세하셨습니다.

◎ 안동김씨 대종회 고문 泰英(익원공파)님께서 1월14일 별세하셨습니다.

• 장지 : 경기도 광주 퇴촌 선영

• 장지 :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노송리 가족묘지

익원공파 전침공(諱宗潤) 歲一祀 奉享



2018.10.21.(음9.13. 일요일) 오전11시 충북 괴산군 청안면 조천리 선영에서 안동김씨 익원공파 전침공(諱宗潤) 감찰공(諱琛) 청안현감공(諱善孫) 행형조좌랑공(諱淡) 선조님의 세일사를 봉향하였다.

이날 대종회장 석한님, 인성하이텍 사장 재선님, 방손 참석자는 안렴사공파종회장 선희님, 괴산종친회장 태관님, 뚝자리장인 용두(제)님이 참석하셨으며 익원공파사무국장 영수님, 부여 익원공파부회장 성희님, 재식부부님, 의정부 재훈·재만님, 충민공종친회

수희부부님, 전침공종회 회장 재택부부님, 총무 충식부부님을 비롯하여 후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제 봉향의 예를 다하였다.

먼저 재훈 태진님이 산신제를 올리고 집례의 창홀에따라 제례를 봉향하고 종료 후 전침공종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회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석한 대종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었으며 점심식사를하며 종친간 돈목의 시간을 갖었다.

뚝자리장인 용두(제)님이 474번째로 만든 뚝자리를 전침공종회에 기증해 주셨다.

▶분정 *초헌관 재택 *아헌관 용두 *종헌관 태관 *집례 재만
*축관 태진 *좌집사 연묵 *우집사 재도 *찬인 영수
*봉로 상만 *봉작 일회

- 기사·사진 김충식 -

익원공파 충민공종회 선조님세일사 봉향



2018.10.27.(음 9.19.(토요일) 충남 논산시 상월면 산성1길5 충민공(忠愍公) 재실에서 蔭宣傳司果公(諱潔) 忠義衛展刀副尉公(諱承碩) 老山縣監行清州牧使公(諱欽忠愍公) 선조님을 비롯

하여 여러 선조님들의 세일사 봉향을 거행하였다. 이날 충민공종친회장 재관님 재식님 부부 구회 봉수 인회 남회 수찬부부 태인부부 재택 부부총무 수희부부를 비롯하여 종친 30여명이 참석하여 시제를 봉향하고 점심 식사를 하며 종친간에 돈목의 시간을 갖었다.재관 회장님께서 기념타월을 제공 해 주셨다.

▶분정 •초헌관 - 재관 •아헌관 - 구회 •종헌관 - 태인
•축관 - 수희 •봉향 - 인회 •봉로 - 대의 •봉작 - 남회

- 기사제공 총무 수희 -

正儀公 諱哲 享祀 奉行



2018. 11. 24(토) 오전12시 正儀公 諱哲 先祖 考妣位의 향사가 안동시 임동면 중평리 432번지 지단묘역에서 종회장 태석(泰石)님을 비롯하여 후손 20여명이 참석하여 시제를 올렸다. 홀창에 따라 헌관들의 헌작이 있었으며 참사자들의 참배가 진행되었다. 폭설로 인하여 먼곳에서 오신 종친들께서 고생이 많으셨으며 향사 종료 후 종사에 관한 설명을 듣고 토론하며 돈목의 시간을 공유하였다.

▶분정

• 초헌관 : 김태석 종중회장 • 아헌관 : 김경희 부회장
• 종헌관 : 김연회

- 기사.사진 제공 /사무장 : 金洙糊 -

안렴사공파 수도권종회 송년회



2018년 12월 15일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30여명의 종인께서 참석을 하시어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 송년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식순에 의하여 1부순서 국민의례에 이어 참석한 종인 소개를 성회

고문께서 덕담과 함께 한분 한 분 소개를 하였고 수도권 형남회장의 인사말씀과 선회파종회장, 춘식 명예회장님께서 격려사를 하였고 태룡고문께서는 종회 발전을 위하여 보수적인 생각을 진취적인 생각으로 바뀌서 변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부에서는 형남회장의 건배사와 함께 오찬을 즐기며 못 다한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이날 식대와 선물은 형남회장께서 찬조를 해주셨습니다.(200만원 상당) 형남 회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무는 戊戌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己亥年 건강하시고 가내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날은 대종회에서 총렬공 학술대회를 보인고등학교에서 개최하였으나 수도권종회 송년 행사가 있어서 부득히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 현수 -

안동김씨(典)주서공(첨추공,안산,정남)종친회 2018년도 총회 및 송년회 개최



일시 : 2018년 12월 28일(금) 오후5시

장소 : 오산시 소재 “웨딩의 전당”

전서공(휘성목)의 6대손인 주서공(휘,사민)종친회 (첨추공,안산,정남) 2018년도 총회 및 송년회가 40여명의 종친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산시 소재 “웨딩의전당”에서 개최 되었다.

관교회장의 개회사와 1년간 종사업무 추진내용에 대한 설명과 준교대총회 부회장의 격려 사가 있었다.

참석내빈으로는 참의공종중 태선감사, 대총회이사 용교님, 용우님 등이 참석하여 행사를 빛내주었다.

이어 대경(교)의 사회로 진행된 총회의 종택, 강우, 감사 보고에 이어 2018년도 결산(안)과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석식 후 화기애애한 가운데 노래 자랑을 갖고 종친들 간에 친목도모는 물론 2019년도에는 더욱 발전하는 종친회를 위하여 건배로 성황리에 마쳤다.

— 기사제공 : (典)준교.[대총회,안산,정남 종친회 부회장] —

2019年度 提學公派 竹溪公宗中 定期總會 盛了



2019.1.20.일요일 오전11:00 2019년도 제학공파 죽계공종회(회장 상

근) 정기총회가 천안시 원성2교길 49 소재 광화문집 한식당에서 20여 종친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14:00에 성료되었다.

총무 윤철님의 진행으로 회장 인사와 결산보고 기타 안건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회장인사로 죽계공묘소 사초 및 진입로 석재계단 설치 등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하고 참석자 한사람 한사람을 소개하여 중중 발전에 협조를 부탁하였다. 이어 결산 보고와 질의를 받아 설명을 하고 제출된 결산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였다.

기타결정 사항은 청소비용을 20만원 지출하기로 결정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자리를 옮겨 식사를 하며 돈목의 시간을 가졌다.

수권(인터넷 족보)편찬 회의 개최



2019년 01월 23일(수요일) 오후 4시에 대총회 회의실에서 영환위원장을 비롯한 수권위원 8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 끝에 제안한 내용을 상정하여 다음과 같이 인터넷족보 수권 등재 및 수정의 건을 처리하였다.

참석 : 위원장 영환. 간사 용항. 위원 재영. 태선. 용주. 현수. 태영. 사무총장 상근

〈안건〉

1. 수권 통계자료 등과방목(문과) 추가 등재의 건 / 제안 내용과 같이 결정.
2. 수권 통계자료 문헌록 1271쪽 / 제안 내용과 같이 결정
3. 수권 족보 상권 총렬공 차자 김흔의 면주 추가
 - 결정 : 면주에 두 분의 배위 모두 기본 등재 방식에 맞춰 등재하되, 근거. 출처 등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별지 부록에 기재하여 처리한다.

4.효소공 따님 숙의 = 명빈의 수정문제

- 결정 : 비문에 기록된 문구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후에 추증된 내용은 별지 부록에 기재하여 처리한다.

5.오자 수정 요청 / 제안 내용과 같이 결정.

6.정간공(영후) 배위 상당국대부인 수정의 건

- 결정 : 비문에 기록된 문구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고지할 내용은 별지 부록에 기재하여 처리한다.

— 안동김씨을미대동보수권편찬위원회 위원장 김영환 —

축하합니다.

자랑스런 忠烈公後裔

총렬공25대손

김태봉(金泰鳳) 總長(翼 孝昭公系)

2019.1.15(화) 대덕대학교 제15대

총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대덕대학교 총장
Daeduk University
김태봉

제3회 충렬공 김방경 중시조 학술대회 성료

충렬공기념사업회(회장 김재용)는 12월 15일 보인고등학교 강당에서 150 여명의 내외빈 및 종친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영사무국장(대중회 사무부총장)이 1.2부 사회를 맡고 3부에서는 채웅석교수(가톨릭대)가 진행하여 「충렬공 김방 경의 정치적 입장과 관련하여」라는 주제로 제 3회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 하였습니다.

이날 1 부 개회식 행사에서는 국민의례와 선조님 영령에 대한 묵념에 이어서 내빈 소개를 마치고 김재용 기념사업회 회장님의 개회사와 축사는 김석한 안동김씨 대중 회장님을 대신하여 김상근 사무총장께서 대독하시고 1 부 행사를 마쳤습니다. 2부에서는 본격적인 학술대회를 시작하여 .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재우교수 (성균관대)의 「여몽전쟁기 강화 협상과 담당자」라는 주제로 충렬공의 강화협상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고, 두 번째 주자로는 정동훈교수 (서울교육대)의 「고려 충렬왕 원종대 대몽골사신 인선」이라는 주제로 고위 관료의 사행과 충렬공의 사행 성격 및 횡수 등을 발표했으며, 마지막 세 번째 주자로 이명미교수(한국외국어대) 의 「김방경 사후 예상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 대한 주제로 충렬공께서 공신이며 고위관료 임에도 불구하고 예장을 치루지 못한 원인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재범(전경기대부총장) 경기대 명예교수의 「삼별초의 성격과 일본 정벌」과 관련하여 약 20 분에 걸쳐 강연을 하였습니다. 원래는 1 부에 순서를 정했으나 교통 혼잡으로 늦게 도착여 2 부 말미에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3부 토론에서는 채웅석교수(가톨릭대)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으며,

첫 번째 토론자 김영환회장(안동김씨역사연구회)은 “강화협상에 문신과 무신을 나눈 기준 이 무엇이며, 최씨 무신정권 하에서 문신과 무신을 어떻게 구분 했는가?” 등을 질문하였으며, 이어 두 번째 토론자 김재영부회장(충렬공기념사업회)은 “사신의 관직과 관품이 높은 것은 원간섭기의 시대적 요구가 아니었나 ? 시중과 중찬 등 관품이 종 1 품으로 되어 있는데 증서문하성과 증추원의 재추들이 모두 종 1 품인가 ? 그 후 70 년 간 비슷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큰 오차가 없겠는가?” 등을 질문 하였고, 세 번째 토론자 김윤만감사(안동김씨대중회)는 “충렬공에게 관작을 추증 하고 시호를 내리고 신도비를 세우라고 한 왕이 『고려사 열전』에는 충선왕으로 , 안진이 지은 『충렬공 행장』에는 충렬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왕이 바른 기록인지 ?” 등을 질문하여 예정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열띤 토론과 발표자의 견해를 듣는 유익한 학술대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외부행사를 마치고 오신 김석한 회장님의 인사말씀을 끝으로 학술대회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오후 5 시 20 분에 버스와 승용차편으로 인근의 식당 (이천집)으로 옮겨, 푸짐하고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으로 반주를 겸한 만찬을 즐겼습니다.

이날 행사는 참석하신 종친여러분 대다수가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셨고, 학교법인 대주학원 김석한 이사장님의 지원과 학교 관계 교직원 여러분의 도움이 컸으며, 충렬공기념사업회 회원들의 노고로 학술대회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날 거금의 저녁식사비를 후원해 주신 익원공파 수원 참의공 종중(회장 김성회)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천안과 충무공 김시민 장군 학술세미나 개최



충무공 김시민장군기념사업회(회장 김법혜)는 천안이 낳은 진주 대첩의 영웅 충무공 김시민 장군을 역사적으로 조명하는 천안과 충무공 김시민장군 학술세미나를 26일 오후 2시-5시 까지 천안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개회식에는 국민의례에 이어 김법혜회장의 인사말씀과 천안시 동남구청장의 축사, 송인영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지구장의 축사가 있었고 유미자님의 전통 굿거리 춤과 벽옥두예술단의 비나리 공연이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사업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충훈정신이 숨쉬는 역사 문화도시 천안에 김시민 장군의 충렬사와 생가지 복원사업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장군의 숭고한 충절정신 과 탁월한 리더십을 더욱 선명하게 조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재석 천안동남구청장 박남주 시의회운영위원장 이종수 충남역사 문화연구 원장 김상근 안동김씨대중회 사무총장 김현덕 민족통일중앙협의회 부의장 송인영 세계 평화통일가정연합 지구장 등이 참석해 대강당을 메운 많은 시민들과 더불어 발표와 토론을 경청했다.

기조강연에서 박희봉교수(중앙대 사회과학대학장)는 충무공 김시민 목사와 진주대첩 을 발표했으며, 주제강연에서는 이영석교수(우석대 겸임교수)가 충무공 김시민의 장수 자질과 지휘통솔을, 김강식교수(한국해양대 HK교수)가 임진 왜란기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기억 과 정과 의미를, 강민희 교수(대구한의대 교수)가 충무공 김시민 장군 콘텐츠 기획 및 활용을 위한 시론을 발표하고, 주제별 토론이 진행되었다. 주제별 토론자로는 제장명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장) 교수 연(유원대학교 교수) 김성열(천안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이 토론좌장 김경수(청운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주제별 질의와 토론을 하였다. 행사를 주관한 김법혜 회장은 “2019년에는 반드시 생가지가 국가사적지로 승격 되고 충렬사가 복원되어 많은 이들이 찾아 국가와 민족의 안녕을 위해 목숨을 초개 같이 불태우신 충무공 김시민 장군을 기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기대합니다”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김석한 회장님 서울대AMP대상 (공공부문) 수상

안동김씨 대종회 석한 회장님께서 제18회 서울대AMP대상 (공공부문) 수상자로 선정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서울대 경영대학 최고경영자 과정 총동창회는 2019년도 AMP 대상 수상자를 선정 하고 1월11일 오후6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시상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안동김씨대종회장이시며 대주학원 이사장이시고 인성하이텍(주) 창업주로서 2009년 동탑 산업훈장을 수상하셨고 30여년의 기업경영을 통해 인재육성의 중요성을 깨닫고 2004년 막대한 사재를 들여 보인정보산업고를 인수 2011년 자율형 사립고인 보인고등학교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인성교육과 다양한 체험교육, 사교육없기에 주력 서울의 남자 자사고 입학경쟁율 1위의 명문고로 육성했습니다. 서울대경영대학 최고경자과정 57기 동창회장을 지내시고 총동창회부회장을 맡는 등 봉사와 협력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시니 본인의 영광 뿐만아니라 우리 안동김문의 큰 경사입니다. 이날 수



상식에는 3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고 대종회에서는 사무총장과 영수익원공파종회 사무국장이 참석하여 축하 하였습니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AMP Awards 2019

수상소감

| 학 력 |

- 1974. 02 보인고등학교 졸업
- 1981. 12 [美]COHEN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1992. 02 성균관 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2002. 02 국민 대학교 정치 대학원 석사 학위취득
- 2004. 08 서울 대학교 경영대학원 AMP 57기 수료
- 2015. 02 국립 공주 대학교 교육 대학원 교육학 박사 학위취득
- 2000. 12 [美]COHEN 대학교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동물보호단체 추천)
- 2006. 05 국립 공주대학교 명예 교육학 박사학위 취득 (재경공주향우회 추천)
- 2007. 05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 게르첸대학교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동물보호단체 추천)

| 경 력 |

- 1986. 12 (주)인성물산 설립
- 1993. 06 청도인성 인조모피 유한공사 설립(중국 청도시)
- 1999. 10 곤산인성 인조모피 유한공사 설립(중국 상해시)
- 2000. 05 (주)인성하이텍으로 상호 변경
- 2004. 07 학교법인 보인학원 제8대 이사장 취임
- 2005. 06 학교법인 대주학원으로 법인 명칭 변경
- 2006. 10 보인고 일반계 고등학교 설립 인가
- 2007. 03 보인고 일반계 고등학교 개교
- 2008. 06 보인고 100주년 기념행사 거행
- 2009. 07 보인고 2011학년도 자율형 사립고 지정
- 2011. 03 보인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개교

| 수 상 |

- 1991. 11 무역의날 표창 수상(무역협회장 박용학)
- 1993. 11 제30회 무역의 날 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대통령 김영삼)
- 1995. 04 1994년 수출외화창출 및 이윤발생 우수 외상 투자기업 선정 (중국 청도시)
- 1997~08 2년 연속 선진외상투자기업 선정 (중국 청도시)
- 1998. 11 제35회 무역의 날 무역진흥공로 표창 (산자부장관 박태영)
- 2000. 10 중국 중화 인민공화국 강소성 곤산시 명예 시민증 획득 (중국 곤산시)
- 2000. 11 제37회 무역의 날 오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대통령 김대중)
- 2000. 11 대통령 표창 (해외시장 개척부문) 수상 (대통령 김대중)
- 2000. 12 제5회 경기중소기업 대상(해외시장개척분야) 수상 (경기도지사 임창렬)
- 2002. 04 중국 청도인성 성실납세단위 “AAA”등급 부여받음 (중국 청도시 세무국)
- 2002-03. 100대 개인 납세자 선정(국세청장 이용섭)
- 2003. 10 경기도 산업평화상 기업체 부문 은상 (경기도지사 손학규)
- 2004. 03 제38회 납세자의 날 ‘산업포장’ 수훈 (대통령 노무현)
- 2007~10. 대한민국 섬유소재 품질대상(인조모피 부문) [지식경제부]
- 2009. 11 제23회 섬유의 날 ‘동탑산업훈장’ (모범경영인부문)수훈 (대통령 이명박)
- 2010. 07 서울시장 표창 수상(3년간 성실 납세 부문) (서울시장 오세훈)
- 2015. 10 공주시 웅진 문화상 수상(공주시장 오시덕)
- 2016. 11 사학육성공로자 (공로상 봉황장) 수상(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장)
- 2017. 10 교육부분 송파구민 대상 수상 (송파구청장 박춘희)

김 석 한

| 학교법인 대주학원 이사장 | (주)인성하이텍 회장 | 57기 |

교육에서 희망을!

제18회 서울대AMP대상(공공부문) 수상자로 선정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1986년 동물보호 대체산업인 인조모피 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고 (주)인성하이텍을 설립했습니다. 지난 33년 간 불확실한 세계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해외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단일품목으로 세계 1위,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석권한 수출기업으로 성장해왔습니다.

한 해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보내는 바쁜 일정에도 모교인 보인고 후배들을 후원하던 중, 2004년 경영난에 빠진 재단을 인수하고 이사장에 취임한 뒤 학교를 변화시켰습니다.

먼저 ‘인성교육’을 제1의 교육가치로 세우고 교육수요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고객만족경영’을 실천했습니다. 학부모들은 학교 교육만으로 자녀가 꿈을 찾고 성장하길 원합니다. 인성과 실력을 함께 키울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기획했고, 치열하고 투명한 공개경쟁을 통해 최고의 교사들을 선발했습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집단지성을 실천할 수 있도록 조직 내 협의와 토론 문화를 확산시켰습니다. 열정을 갖춘 교사들이 학교를 변화시키자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는 빠르게 높아졌고, 지역사회의 신뢰와 지지가 확산되었습니다.

내부로부터의 변화와 쇄신은 학교를 지역사회와 핵심공간으로 변모시켰고, 교육의 기능에 대한 지속적 고민은 교육의 객체를 주체로 변화시키는 교육모델을 완성시켰습니다. 그 결과, 사교육 없이도 진학자의 85% 이상이 서울과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진학하고, 6년 연속 서울 강남권에서 4년제 대학 진학률 1위를 자랑하는 자율형사립고가 되었습니다.

보인고등학교는 110년이라는 장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민족 사학들의 뿌리가 교육에서 희망을 찾으려는 선구자들의 해안에서 시작되었듯, 4차 산업혁명을 넘어 다가올 100년,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할 희망 역시 교육에 있습니다.

저는 보인 중·고등학교에서 지난 15년간 경험한 교육모델이 대한민국 교육 변화의 작은 불씨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교육 사업에서 얻은 보람을 통해 교육이 우리 사회의 희망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주신 상은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간절히 원하는 저의 진심에 대한 응원과 격려, 앞으로도 사회 어두운 곳을 밝히는 교육과 미래 사회를 주도할 창의적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라는 동문님들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저에게 늘 인생의 사표가 되는 많은 동문님들 앞에서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척약재 친필, 급암시집(及菴詩集)

급암시집의 간행 경위

급암(及菴) 민사평(閔思平)은 척약재(楊若齋) 김구용(金九容)의 외할아버지로 『급암시집(及菴詩集)』이 전해오고 있는데, 단정하고 공들여 쓴 해서체(楷書體) 판본(板本)이 바로 척약재의 친필이다. 이 시집은 한국 문학사(文學史)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서문과 발문에 따르면 1359년(공민왕 8년) 음력 7월 무신일(戊申日)에 향년 65세로 급암이 작고한 직후부터 외손자 척약재가 간직하고 있던 원고를 토대로 편집에 착수하여 1370년(공민왕 19년)에 간행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급암의 대표작 중 하나인 〈모란시(牧丹詩)〉 맨 끝에 아래와 같은 글귀가 적혀 있는데, ‘제민(齊閔)’은 바로 척약재의 초명(初名)으로서 『급암시집』의 원고 수집과 정리는 전적으로 척약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모란시(牧丹詩)

……益齋老人。以諸老所作牧丹及雜題無慮數百首。譔爲屏居遣悶集。此篇乃集中所載。今併錄于此。至正庚子七月既望。齊閔謹誌。

……익재 노인이 여러 노인들이 지은 모란 시와 잡제(雜題) 무려 수백수를 찬술하여 『병거견민집(屏居遣悶集)』을 만들었다. 이 편은 그 책에 실려 있던 것인데 이제 여기에 기록한다. 지정(至正) 경자년(1360, 공민왕9) 7월 16일 제민(齊閔)이 삼가 쓰다.

편집작업은 급암 작고 직후인 1359년 12월부터 1362년 2월까지 두 차례에 걸친 홍건적의 침입으로 전란에 휩싸여 중단되었다가 1362년 여름 이후에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담암(淡庵) 백문보(白文寶)와 목은(牧隱) 이색(李穡)이 쓴 서문을 보면, 이 무렵 사실상 편집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여말의 혼란과 홍건적과의 전쟁으로 인해 목판을 새기는 일이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행히 급암의 문하생인 이이(李頤)가 1369년(공민왕 18년) 가을부터 겨울까지 경상도 안찰사로 재임하면서 목판을 새겨 책을 펴낼 수 있었다.

급암시집의 판하본은 척약재 친필

판각(板刻)할 때 글을 적은 종이를 뒤집어 나무판에 붙이고 기름을 칠하면 글자가 또렷해진다. 이때 나무판에 붙이는 종이에 적은 글을 판하본(板下本)이라고 한다. 보물 제708호인 『급암시집』은 5권 1책의 목판본인데, 표지는 전해지지 않는다. 원본은 총 88장(帳：176面)이며, 이 가운데 20장(帳)이 훼손되어 후대에 필사(筆寫)로 보충해 놓았다. 나머지 68장(帳)은 서문 일부를 제외하곤 비교적 상태가 좋은 편이다. 이 서문과 발문의 내용, 인장(印章), 글씨체 등을 살펴보면 누구 필적인지 파악할 수 있다.

서문과 발문에서는 하나같이 『급암시집』 간행에 척약재의 공력을 높이 사고 있는 내용이 적혀 있다. 특히 목은 이색이 1370년(공민왕 19년)에 쓴 발문에는 이 책의 판하본이 척약재 친필임을 밝히고 있다.

曩予既爲金氏兄弟。序其外大父及菴先生之詩矣。及今與敬之同在成均。每見敬之授徒餘暇。輒屏靜處。日書一紙。豐暑弗輟。予益重之。蓋敬之生長外家。故知慕尤深。性喜文墨。故不怠如此。繕寫甫訖。先生門人李端公頤適按慶尙。鋟梓之功。由茲克成。豈天相敬之篤孝之誠耶。

지난 번에 내가 김씨 형제를 위하여 그들의 외조부인 급암(及菴) 선생의 시집에 서문을 써 주었다. 지금 나는 경지(敬之：척약재의 字)와 함께 성균관에 재직하고 있는데, 경지가 생도를 가르치는 가운데 여가가 있으면 고요한 곳으로 물러나 날마다 시집을 한 장씩 베껴 쓰면서 무더운 여름에도 그치지 않는 것을 매번 보고는 내가 더욱 중하게 여겼다. 아마 경지는 외가에서 나고 자랐기에 외조부를 사모하는 정이 더욱 깊고, 성품이 글 쓰는 일을 좋아하기에 태만하지 않는 것이 이와 같았으리라. 베끼는 일을 막 끝냈을 때, 선생의 문인인 단공(端公) 이이(李頤)가 경상도 안찰사로 나가게 되어 문집을 간행하는 일이 이로 인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으니 어찌 하늘이 경지의 두터운 효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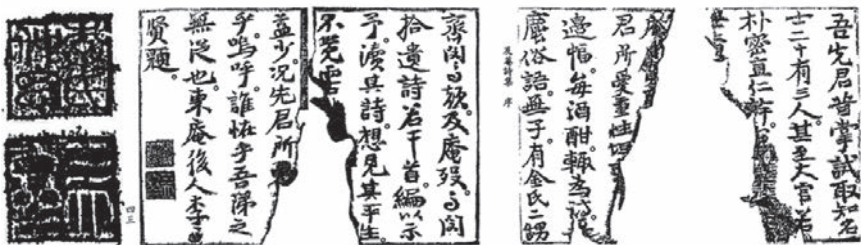
도와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처럼 『급암시집』의 판하본은 척약재 친필임을 알 수 있으나, 서문 3편과 발문 2편은 글씨체가 다르다.

■ 서문 · 발문의 작성자와 작성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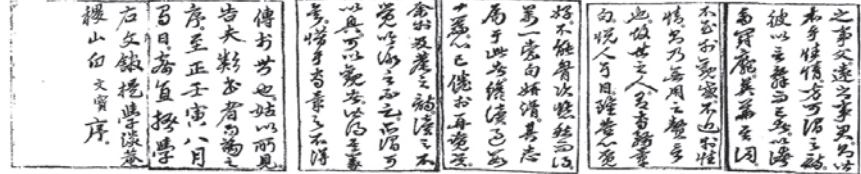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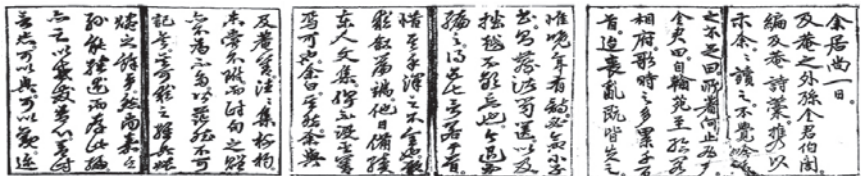
구분	지은이	작성 시기
서문	이제현(李齊賢)	미상(기록 없음.)
	백문보(白文寶)	至正壬寅八月有日：1362년(공민왕 11년) 8월 어느 날
	이색(李穡)	至正壬寅日北至：1362년(공민왕 11년) 하지(夏至)
발문	이색(李穡)	庚戌春分前五日：1370년(공민왕 19년) 춘분(春分) 5일 전
	이인복(李仁復)	商橫闌茂姑洗既望：1370년(공민왕 19년) 3월 16일

익재 이제현의 서문은 『급암시집』 첫머리에 적혀 있는데, 글 끝에 인장을 찍어서 이 글이 익재의 친필임을 나타내고 있다. 인장에는 ‘李氏仲思’와 ‘益齋’로 적혀 있는데, ‘仲思’는 자(字), ‘益齋’는 호(號)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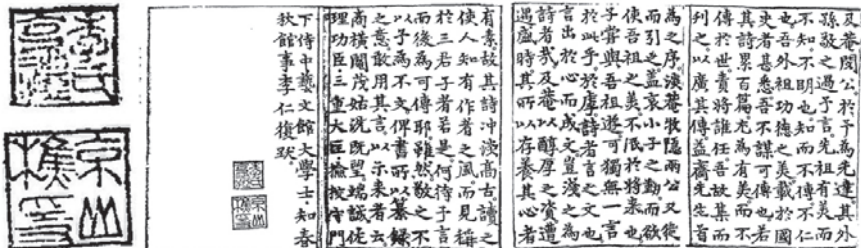
▲ 익재 이제현의 서문과 인장(印章)

두 번째 서문은 담암(淡庵) 백문보가 1362년(공민왕 11년) 8월에 지었는데, 첫 장과 마지막 장이 훼손돼 후대에 보사(補寫)하였다. 이 때문에 글 끝에 찍혀 있던 인장도 함께 훼손되었다. 원본은 초서체인데 반해 보사한 부분은 해서체에 일부 글자만 초서체라 쉽게 구분된다.



▲ 담암 백문보의 서문과 인장(印章)

세 번째 서문은 목은 이색이 1362년(공민왕 11년) 하지(夏至)에 지은 것으로 글 끝에 인장이 찍혀 있다. 인장에는 전서(篆書)로 ‘李穡’, ‘潁叔’, ‘韓山牧隱’이라 적혀 있다. ‘潁叔’은 자(字), ‘牧隱’은 호(號)이다. 이에 비해 1370년 봄에 지은 목은 이색의 발문은 인장이 찍혀 있지 않으나, 필적은 서문과 같다.



▲ 목은 이색의 서문과 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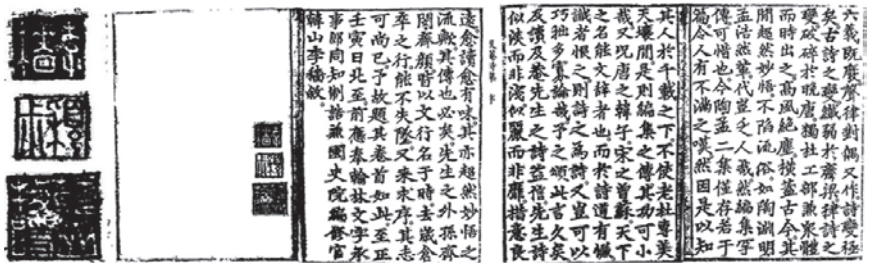


◀ 목은 이색의 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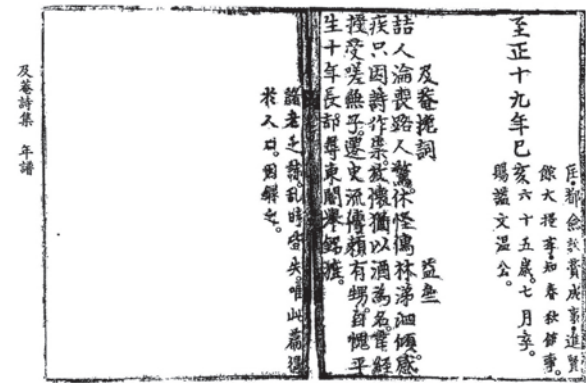
◀ 목은 이색의 서문(왼쪽)과 발문(오른쪽)의 글자체 비교

두 번째 발문은 초은(樵隱) 이인복이 1370년(공민왕 19년) 3월에 지었으며, 끝에 인장이 찍혀 있다. 인장에는 ‘李氏克禮’, ‘京山樵隱’으로 적혀 있다. ‘克禮’는 자(字), ‘樵隱’은 호(號)이다.



▲ 초은 이인복의 발문

이외에 제정(霽亭) 이달충(李達衷)이 지은 ‘금암 선생 묘지명’이 있는데, 글씨체는 척약재 필적과 같다. 또한 묘지명 끝에 익재 이제현이 지은 <금암만사(及菴挽詞)>는 익재의 필적이 아니라 척약재 필적이다.



◀ 익재 이제현의 금암만사. 척약재 필적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금암시집』은 총 88장(帳) 가운데 20장이 훼손돼 원본은

68장만 남아 있다. 이 가운데 익재 이제현 2장, 담암 백문보 4장, 목은 이색 3장, 초은 이인복 2장 등 11장(22面)을 제외한 57장(114面)은 척약재 친필임을 확인할 수 있다.

－ 문온공파 윤식(胤植) 근지(謹識)－

안동김씨역사연구회(안사연) 2019년 신년회 성료

안사연 신년모임이 2019년 1월 18일(금) 회원 18명(등록회원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대역 푸주옥에서 있었다. 안사연 영환 회장은 인사말 겸 모두 발언을 통하여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 관한 그동안의 경과와 안사연 자체 모사본 제작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 강리도(疆理圖))』는 1402년(태종 2) 좌정승 김사형(金士衡), 우정승 이무(李茂), 검상 이회(李薈)가 만든 현전하는 동양 최고(最古)의 세계지도로 당시로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훌륭한 세계지도라고 평가받고 있다. 채색 필사본으로 세로 148cm, 가로 164cm의 대형 지도로 아시아·유럽·아프리카를 포함하고 있고, 지도 하단에는 권근(權近)이 쓴 발문이 있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원본(1402년 作)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가장 오래된 복제본으로 알려진 것이 일본 교토의 류코쿠[龍谷]대학본으로 1480년경 조선에서 복제되어 임진왜란 즈음에 일본으로 건너가 현재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 일본 나라현 텐리[天理]대학 도서관에 있는 『대명국도(大明國圖)』, 혼묘우지[本妙寺]에 있는 『대명국지도(大明國地圖)』, 1988년에 발견된 혼코지[本光寺]에 소장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가 있으나 이 모두 조선에서 복제된 것들이다. 1402년에 제작된 원본에 가장 가까우며, 발견된 것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류코쿠대학본은 공개를 잘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미국에서 콜럼브스의 신대륙 항해 500주년 기념으로 “1492년 즈음에-Circa 1492”라고 하여 1992년 12월 미국 워싱턴 국립미술관(National Art Gallery)에 3개월간 전시한 것이 최초의 나들이였다. 한국에는 1996년 12월 순화동에 있는 호암갤러리에서 텐리대학의 『몽유도원도』와 함께 일본에서 대여받아 전시한 것이 유일하다.

류코쿠대학본의 모사본은 일본 교토[京都]대학에서 1910년 오가와 다쿠지[小川琢治]교수가 지도 제목과 지도만 복제한 것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서울대학교 이찬 교수가 모사하여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유일하다.

안사연에서는 오는 3월에 일본 류코쿠대학 도서관을 방문하여 이 『강리도』를 친견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아울러 교토대학에 있는 모사본과 또 이 대학 도서관에 소장된 『금석집첩(金石集帖)』도 열람 할 예정이다. 『금석집첩』은 영조 때 전국에 있는 중요한 금석문을 탁본하여 제작한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일본에 가 있다. 이 『금석집첩』에는 충렬공(김방경)의 묘비문(현재 충렬공 묘소 오른쪽에 세워져 있는 마모된 비석)의 탁본도 있고, 문정공(김질) 선조님의 묘소의 비석도 현재 마모

되어 판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찬자(撰者)인 서거정의 문집에도 들어 있지 않아 비문을 알 수 없었는데 『금석집첩』에 탁본이 있어 확인하여 『충렬공자료집성』에 등재한 바가 있다. 그 외에도 우리 집안 선조님들의 비문이 많이 들어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 다음은 총무 보고사항으로

- ① 2018년 신년모임(01.19) 교대역 푸주옥.
- ② 1/4분기 정기답사(3.24) ‘양평 구정승골에서 과갈(瓜葛)의 인연을 만나다.
- ③ 2/4분기 정기답사(6.02) ‘白馬江에 뿌리내린 그 깊고 깊은 淵源’이라는 주제를 갖고 세종시·공주시·부여군·논산시 일원의 답사
- ④ 3/4분기 정기답사(10.05~10.06) 1박 2일 ‘천만(千萬)의 섬 오랑캐! 무엇이 두려우랴.’라는 주제를 갖고 회원 39명이 참석하여 통영시, 진주시 일원에서 있었던 일,
- ⑤ 4/4분기 정기답사 겸 안사연 창립 17주년 모임(11.11) 선정릉 탐방에 이어 회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연이 있었던 일을 보고하였다.

정기답사 보고를 마치고, 금년 3월에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를 찾아가는 여행’으로 3. 23(토)~27(수) 4박5일 동안 일본 관서지방[오사카·교토(교토대학, 류코쿠대학)·고베·나라] 탐방계획을 소개하였다.

■ 다음 재무 보고 사항으로

2018년 회계년도 전기이월(16,490,029원), 당기수입(12,582,223원), 당기지출(7,621,360원), 차기이월(21,450,892원)로 2019년 회비 선납분을 제외한 순증가분은 +1,560,863원임을 보고하였다.

회의 안건 중 첫째, 정기답사지 선정의 건은

- 1) 1/4분기 : 충북 청주시 오창읍 ①모정리-안렴사공파조 김사렴(金士廉) 묘소 ②양지리-송천서원 ③양지리 입향조 현령 김지(金棼) 묘소 ④남이면 팔봉리 성천부사 민숙공 김언(金王言) 단소 참배.
- 2) 2/4분기 : ①상락군개국공 첨의령 시 충렬 김방경(金方慶) 유배지 백령도 ②찬성사 상락공 김흔(金忻) 유배지 대청도, 두 곳에 할아버님 유허비 건립 추진. 2.안사연 학술대회 개최의 건은 4/4분기에 일시, 장소, 주제 및 발표자 등 계획을 세워 시행하기로 함.
- 3) 기타 안건으로 ①안사연 회칙 중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②일반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본회에 입회신청을 하고 당해년 1월 15일 까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라고 일반회원의 개념을 구체화하기로 의결하였다.

－ 기사제공 : 안동김씨역사연구회 총무 윤만－

연복사(演福寺) 기록에서 보는 개경(開京)의 우리 역사

개성 송악산 아래 자리한 백목동 앵계리(栢木洞 鶯溪里)는 고려시대 충렬공 김방경(金方慶)께서 거주하셨던 마을 이름이다. 늙은 전나무가 많아 회동(檜洞)이라고 하였으며, 충렬공의 ‘앵계저택(鶯溪邸宅)’ 누마루에 앉아 바라보면 용수산(龍首山)이 들어오고 창문 넘어로는 보제사(普濟寺) 5층 탑이 마주 한다.

이곳 앵계마을은 꽤나 유명했던 인물들이 거쳐하던 곳임을 알 수 있다. 학자 이규보(李奎報), 문정공 방우선(方于宣), 중찬 정인경(鄭仁卿) 등이 그곳에 사택, 별장을 지어 만년을 보냈다는 기록이 보이고, 삼국사기를 지은 김부식(金富軾) 또한 앵계리에 사는 것이 꿈이었다고 한다,

궁성에 접한 남쪽 지역은 정승동이라고도 불렀는데, 말 그대로 정승들이 거주하던 곳으로 출퇴근이 자유로웠으며 궁에서 가까운 곳이라고 한다. 여말선초 유명 인사들의 거주지가 대부분 궁성 남쪽에 포진하고 있는 것을 문헌에서 볼 수 있으며, 우리 선조들의 거주지 역시 정승 동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충렬공 김방경(金方慶)은 앵계리와 고류동, 충숙공 김승용(金承用) 고류동, 문온공 김구용(金九容) 서재동, 익원공 김사형(金士衡) 양온동의 기록을 볼 수 있다.



■ 연복사(演福寺)의 옛 이름 광통보제사(廣通普濟寺)

앞서 설명했던 충렬공의 ‘앵계저택’ 창문에서 바라보이는 보제사(普濟寺)는 바로 연복사의 옛 이름으로 고려의 수도 개성에 있었던 엄청난 규모의 사찰이었다. 절집이 무려 1천 여채나 되며 3개의 연못(池)과 9개의 우물(井)이 있었다고 한다. 『고려도경(高麗圖經)』에 의하면 이 절은 사액(寺額)을 관도(官道) 남향에 걸었고, 중문에는 신통지문(神通之門)이라는 편액을 걸었다. 정전(正殿)은 나한보전(羅漢寶殿)으로서, “왕이 사는 대궐보다도 화려하다”고 하였으며 오층탑은 높이가 2백 척(尺)이 넘었다고 한다.

• 1276년(충렬왕 2년)에 중찬 김방경(金方慶)이 보제사에 오백나한당(五百羅漢堂)을 지었는데 매우 웅장하고 화려했다. 큰 법회[丙子法席]를 열어 낙성식을 하는데 원나라의 다루가치와 첨의부, 밀직사 양부에서 모두 참석하였으며, 서울안의 인사들과 부녀자들이 구름처럼 몰려 들었다. 『고려사열전』

1) 연복사(演福寺) 범종(梵鍾)

보제사는 충숙왕 원년(1313년)에 연복사란 이름으로 바뀌었다. 범종(梵鍾)은 1346년(충목왕 2년)에 원나라의 자정원사(資正院使) 강금강(姜金剛)이 천자의 명으로 금강산 장안사의 종을 주조할 때 덕령공주



(德寧公主：충목왕의 모후(母后)와 찬성사 김영돈(金永暉) 등 여러 대신들이 원나라 기술자들로 하여금 연복사종도 주조하게 하고, 복창부원군 김영후(金永煦), 김해부원군 이제현(李齊賢) 등 여러 경상(卿相)들이 함께 발원하였다.

종의 형식은 고려종과 달리 종의 몸체는 기다란 원통형이며, 입구는 나

팔모양으로 벌어졌고 직선이 아니라 8개의 너울모양의 굴곡으로 이뤄졌다. 그 안쪽 둘레에는 물결무늬가 있으며 그사이에 8괘를 새긴 진귀한 의장을 보이고 있다. 종을 거는 고리인 용뉴(龍鈕)의 경우, 몸은 하나이나 양 끝에 각각 머리가 달려있어 마치 쌍룡과 같은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한마리 용의 고려 용뉴와는 다른 점이다. 대제학 이곡(李穀)이 지은 종명(鍾銘)을 성사달(成師達)이 썼다.

• 연복사종명(演福寺鍾銘 [高麗國金剛山石鍾銘])

모두 함께 종소리를 듣고서 삼군을 정렬하고 악기들 [팔음(八音)]을 고른다. 석가노인의 가르침은 매우 깊은데 땅 밑의 지옥은 어찌 이리 어두운가. 만 번 태어나 만 번 죽으며 고난을 당한다. 취한 듯 꿈꾸듯 귀 멀고 어둡다가 한번 종소리 들으니 다함께 마음이 깨어난다. 왕성 연복사 큰 총림에 새 종소리 한번 울리니 수미산(須彌山) 남쪽을 뒤흔든다. 위로는 하늘을 뚫고 아래로는 깊은 명계까지 모두 깨끗한 복에 의지하여 오묘하게 장엄되도다. 우리나라의 임금과 신하가 거듭하여 중화를 축원하니 천자는 만년토록 장수하며 많은 아들을 낳으시고, 끝없는 복이 온 나라에 함께 하소서. 병술년(1346, 충목왕 2) 6월 기망(既望) 광정대부 정당문학 진현관대제학 지춘추관사 상호군 신 이곡(李穀)



▲ 연복사종명 탁본자료.

•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영상자료에서 발췌, 안타깝게도 ‘贊成事 金永暉’의 글자는 마멸되었고, ‘福昌府院君 金永煦’ 글자는 비교적 잘 나타나 있다.

• 보제사종(普濟寺鐘)

金銀佛寺側城闌 금은으로 장식한 사찰이 성곽을 이웃했는데, 夜夜鳴鍾不失辰 밤마다 종을 울려 시간을 어기지 않네. 誰道令人發深省 저 소리에 깊은 반성 일으킨다 누가 말하였는가. 祇能喚起利名人 다만 명리(名利)에 분주한 사람들을 불러 일으키네. 출처 『설곡집(雪谷集)』 정포(鄭誦, 1309~1345)

※정포는 문영공(휘 恂)의 외손주이며, 김영돈, 김영후는 정포의 외숙

2) 연복사탑중창비(演福寺塔重創碑)

연복사의 현존하는 유물로는 앞서 설명한 범종(梵鐘)과 중창비(重創碑)가 있다. 범종은 개성 남대문의 누각 위에 있고, 중창비는 비신이 망실된 채로 귀부(龜趺)만 용산(龍山) 철도회관 정원에 옮겨졌다. 비는 1394년에 권근(權近)이 지은 것인데, 네 마리의 용이 쌍으로 어우러져서 뒷발로 보주(寶珠)를 받치고 있는데, 마치 무열왕릉의 조각형식을 연상하게 하는 빼어난 작품이다.

• 개성에 있던 ‘연복사탑중창비’는 어떻게 용산철도회관에 자리 잡게 되었을까?

‘연복사탑중창비’는 일제에 의해 개성을 지나는 경의선 철도 개설 과정에서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 용산역으로 옮겨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연복사탑중창비’는 조선 태조 이성계가 1393년 개성 연복사를 다시 복원하며 세운 ‘오층불탑’의 건립내력을 권근(權近)이 짓고, 성석린(成石璘)이 써서 새긴 비석이다. 고려 말과 조선 초의 석비예술 양식을 파악할 수 있는 희귀한 가치가 있다.



• 권근(權近)의 탑중창기(塔重創記)에, “부처의 도는 자비(慈悲)와 희사(喜捨)로 덕을 삼고 응보가 틀리지 않는 것으로 징험을 삼는다. 연복사는 사실 도성 안 시가지 곁에 자리잡고 있는데, 집이 가장 커서 천여 채에 이르며, 안에 3개의 못과 9개의 우물을 파고 그 남쪽에 또 5



▲연복사탑중창지기(演福寺塔重創之記)

층 탑을 세워서 풍수설(風水說)에 맞추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옛 책에 갖추 적혀 있으므로 여기서는 덧붙여 말하지 않겠다. 공양왕(恭讓王)이 장수와 정승들의 힘을 입어 중 천규(天珪) 등을 명하여 공인들을 모집하고 역사를 일으켜 신미년(1391) 2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집을 세우니 가로세로 6채인데 웅장하고도 넓으며, 탑은 5층에 이르고 편평한 돌로 덮었는데 거의 준공하게 되었을 때 헌신(憲臣) 중에

우리 주상 전하께서 창시(創始)하여 큰 법을 세우고 공장들을 감독하기를 더욱 부지런히 하여 낙성하니 실로 임신년 겨울 12월의 일이었다. 계유년 봄에 단청을 장식하니 뽕이 구름 밖을 나는 듯, 새가 하늘가에서 날개 짓하는 것 같으며 채색이 휘황하여 공중에 번쩍인다. 위에는 불사리(佛舍利)를 봉안하고 중간에는 대장경을 간직하며 아래는 비로(毗盧)의 초상을 모시니 국가에 복이 되어 길이 만세를 이롭게 하려는 것이었다. 여름 4월에 문수회(文殊會)를 열어 낙성식을 거행하고, 상이 신 권근을 명하여 그 전말을 기록하게 하였다.

신 권근이 손모아 절하고 머리를 조아려 가사를 드리기를, 높다랗고 우뚝하여 저 송악산과 맞섰는데, 빛나는 구름과 노을, 단청이 눈부시네. 위에는 불사리 모시니 그 신령함이 빛나고, 중간에는 대장경 간직하니 모두 일만 축이네, 아래는 비로자나불 모시니 엄한 꾸밈 있구나. 공덕이 제일 승하니 너무도 풍요롭고 유익한데, 거룩한 임금 일만 년에 종사를 받드네. 큰 복록 천년 억년 이어가니, 못 생민들 고루고루 복리 은택 입으리. 신을 명해 가사 지어 돌에 새기라 하니 신의 가사 거칠고 졸렬하여 읽을 수 없다. 다만 원하건대, 이 탑 넘어지지 않고 나라와 함께 굳건하여 무궁토록 전하옵소서.’ 하였다.”

• 1493년(성종 24)에 허백당(虛白堂) 성현(成俔, 1439~1504)이 연복사에서 지은 시 2수를 소개 한다.

• 개성부에 이르러 연복사에 머물며 짓다 계축년(1493, 성종24) 到開城府留宿演福寺作 癸丑

陽村大手老文章 양촌(權近)이 지은 글은 노련한 명문(名文)이요
獨谷龍蛇又擅場 독곡(成石璘)의 꿈틀대는 필체 또한 으뜸이지
當日萬人空費力 당일에 일만 명이 힘들여 세웠건만
如今苔蝕委荒涼 이끼 끼고 부식된 채 황량하게 버려졌네

• 연복사탑에 오르다 登演福寺塔

金碧煌煌耀夕輝 휘황찬란한 단청이 석양에 으리 빛나라
五層樓閣聳巍巍 오 층 높은 누각이 우뚝하게 솟아 있네
回梯若向天心上 돌아가는 사다리는 하늘을 향해 오른 듯
駭鳥常從脚底飛 놀란 새들은 항상 발밑에서 나는구나

• 송경록(松京錄)

을사년(1485, 성종16) 9월 12일.

남대문에 들어가서 수창궁(壽昌宮)을 보았는데 지금은 창고가 되었다고 한다. 홍례문(弘禮門)을 나와서 용두교(龍頭橋)를 건넜고, 내서소문(內西小門)을 나와서 개성부(開城府)를 지나다가 불은사(佛隱寺)를 바라보니, 서쪽에 작은 동네가 있는데 고려 시중(侍中) 강감찬(姜邯贊)의 옛집과 동네 어귀 동쪽에 정승 조준(趙浚)의 옛집이 있으니, 모두 빈 터만 남아 있었다. 태평관을 지나 동쪽으로 작은 동네에 들어가서 나의 선조인 정승 구정(龜亭) 남재(南在)선생의 옛집을 보았다. 집터는 지금 농부가 경작하는 밭이 되었다. 구정택 아래에 호정(浩亭)선생 하륜(河崙) 정승의 남은 집터가 있고, 남쪽의 고개 하나 뒤에 상락백(上洛伯) 김사형(金士衡) 정승의 남은 집터가 있으니, 또한 모두 밭이 되었다. 동네 어귀를 나와서 동쪽으로 연복사(演福寺)에 들어가 능인전(能仁殿)을 보았다. 큰 불상 세 개가 있고, 사면에 아라한(阿羅漢) 500개가 있었다.

출처 남효온(南孝溫, 1454~1492)의 추강집(秋江集)

법률이야기

1. 휴일근무와 연장근무 수당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무와 연장근무 수당의 중복 지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휴일근무와 연장근무 가산수당할 증율을 명확히 규정함.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하고 휴일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고,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만 통상 임금의 200%를 지급하도록 규정함.

2. 경매 도중 회생절차개시된 경우 채권자는 배당받을 수 없고 회생절차에 따라서만 변제 받을 수 있다.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돼 배당표까지 나왔더라도 배당기일 전에 채무자의 회생절차가 시작됐다면 채권자는 배당을 받을 수 없고 회생절차에 따라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어 채권자가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받은 돈이 있다면 이는 부당이득이 되어 돌려줘야 한다. (대법원 2017다286577)

3. 공부상 도로라도 도로형태 갖추지 못했으면 행정재산으로 볼 수 없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5517)

4. 이혼 전 재산분할약정의 효력

협의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을 하였으나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이혼이 이루어 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 청구의 소에 의해 재판상 이혼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기 합의한 재산분할 약정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5. 전화보험 가입 때 건성으로 대답 조심해야.

보험모집인의 빠른 상품설명에 대충 응답하면서 보험 서류에 병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5603)

공증인가 법무법인 월드 대표변호사 김완식(안렴사공파)

H.P. 010-3753-1896 02-452-2400

김완식(按) 총령공26대손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13기
- 세종대학교 경영대학 회사법 교수 역임
- 대한변호사협회 회사법전문변호사
- 주된 분야 : 민사, 형사, 상사, 가사

안동회관 헌성자 명단 (2019. 01월 20일 기준)

額 面	名數	名(派宗會·宗中·門中·個人·其他)	金 額
		전회 이월금	353,272,982
5십만원	3	(郡)양천중중회	1,500,000
		(按)진희 - 용인	
		(翼)재성 - 무주	
3십만원	1	(典)용교 - 정남	300,000
1십만원	1	(都)영복 - 의성	100,000
		소계	1,900,000
		헌성금 누계	355,172,982

안동회관 성금 계좌번호 안내

국민은행 : 356201-04-133305 (안동김씨대중회)

(주)兩白 문화재

문화재수리/한옥/사찰/제실

보수단청업 01-16-0042호



대표이사 김 진 식
(총령공 27세손, 익원공파)

문화재기능자 대목수 제 4459호
한국미술협회 회원
한국장승진흥회 이사

경북 영주시 하망동 325-19(3F)
TEL. (054)636-1239
C-P. 010-3507-1239
E-mail : ddundol@hanmail.net

회비 및 찬조금을 보내주신 종친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01월 20일 기준)

◎ 임원회비 (부회장)

· 20만원 : (郡)성묵 (典)춘교,관교 (副)원호 (正)태석

◎ 임원회비 (이사)

· 10만원 : (密)재혁 (開)웅선 (典)현덕, 태진, 용우, 용교, 인교, 태의
(副)규세, 창호 (文)형묵, 영회 (提)용선, 용항, 규원
(翼)수인, 성희, 선희, 재택

◎ 통상회비(일반)

· 5만원 : (翼)종대, 재선(일본)
· 3만원 : (按)만석 (翼)용백, 양식
· 2만원 : (文)덕 (翼)종대, 재택, 우회, 정회 (書)규태 (?)규팔

◎ 찬조금

· 20만원 : (典)철화-양천 · 10만원 : (提)용두 (按)미선 (翼)상용

◎ 평생회비

· 20만원 : (도평) 문수

◎ 2019년도분

임원회비(부회장) 20만원	(典)흥식
임원회비(이사) 10만원	(開)웅선
통상회비	5만원 (大)재갑,재수
	2만원 (翼)철회

회비 및 성금 계좌번호 안내

· 임원회비(부회장) - 20만원 · 임원회비(이 사) - 10만원 · 평생회비(개 인) - 20만원 · 통상회비(개 인) - 2만원 이상 · 찬 조 금(개 인) -	국민은행 356201-04-133305 안동김씨대중회
--	--